

## 셋째 주 - 다말과 유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아래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5-7 분 동안 나누십시오:

- 지난 한 주간 제일 기분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여러분 각자의 가족을 소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 성경을 소리 내어 읽기

창세기 38 장: 유다와 다말

##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1. 여러분은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 a. 유다와 다말은 각각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b. 다말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 c.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당시 남자와 여자의 다른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2. 본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 a. 다말이 유다에게 한 행동은 당시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말을 변호하겠습니까?

## 왜 다말과 유다가 중요한가?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 이 세상에 그의 구원을 나타내시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이 아무리 인간으로서 흠이 많고,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막내아들이 다말에게 장가들지 못하게 합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유다는 그의 막내아들을 다말에게 주어,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은 첫째 아들의 대를 잇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유다는 다말에게 남편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 뿐만 아니라 다말의 삶과 미래까지 빼앗아 간 것이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인의 생사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을 통해 한 가족 구성원에 속하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행동은 다말에게는 사회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가 그의 막내아들을 끝내 다말에게 주지 않는다면, 다말은 남은 인생을 수치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말의 지혜와 용기는 여기서부터 발휘됩니다. 창녀로 변장하여 자신의 시아버지 되는 유다에게 들어간 다말의 행동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해결책, 즉 그녀에게 정당하게 주어져야 했던 가족과 자녀를 가질 권리를 빼앗은 유다에게로부터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를 속이기까지 했지만, 우리는 유다가 다말에 대하여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이렇게 유다는 결국 자신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살롬**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살롬은 히브리어로 완전함, 평화, 정의, 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번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다말의 행동은 하나님과 그 당시 사회의 법 앞에 정당했고, 유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유다의 가족을 살롬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비로소 자신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그 때부터 다말을 올바르게 대우합니다. 그로 인해 유다의 가족은 다시 한번 살롬을 되찾게 됩니다. 또 후에는 유다와 다말의 자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말이 유다의 가족을 살롬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살롬으로 이끄실 유일한 분입니다.<sup>1</sup>

다말의 이야기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 믿음의 어머니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죽음과 부정으로 깨어진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가문을 보존함으로 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남자들 뿐만 아닌 여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다말의 시대처럼 남자들이 종종 여자들을 학대하고 무시했던 문화와 사회 속에서도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어떻게 유다와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유다와 다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신의 신실하심을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까지 나타내시며, 악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인들의 정의(righteousness)는 단순히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나 선함과 악함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그들의 민족과 공동체를 살롬으로 이끄느냐를 따집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사고방식으로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자신의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한 비도덕적인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그녀가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보일 만한 행동들을 하면서 까지 이루려고 하는 진짜 목적을 간과하는 것이 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녀의 가정에 질서를 회복하고, 자신에게 그의 막내아들을 내어주지 않는 유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말의 이런 예외적인 행동은 유다의 가족과 그의 공동체를 살롬으로 이끌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다말을 정당하게 대우했으며, 다말은 두 쌍둥이 아들들을 낳아 유다 지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sup>2</sup> 유다는 하나님께서

<sup>1</sup> Chelsea Harmon, “Beyond the Lectionary Text: Genesis 38,” *Center for Excellence in Preaching*, <http://cep.calvinseminary.edu/non-rcl-starters/genesis-38/?term=genesis%2038>.

<sup>2</sup> Chelsea Harmon, “Beyond the Lectionary Text: Genesis 38.”

다말을 통해 그를 낫추셨을 때,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자손들 중 오직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십니다.<sup>3</sup>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공생애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온 민족을 살림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도 적지 않게 미심쩍었습니다. 한 어린, 아직 혼인하지 않은 처녀가 돌연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미심쩍게 여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도덕적 기준을 깨고 무너뜨렸기 때문이지요. 그 하신 말씀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sup>4</sup>

다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과 심지어 그들의 허물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시는가를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또 하나님은 민족과 여러가지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몸소 들어오십니다.<sup>5</sup>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창조하신 세계와 인류를 살림으로 이끄십니다.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림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3.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의 오늘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 a. 여러분은 혹시 억울하고 불공평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b. 여러분은 미처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살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를 해석하는 여섯 가지 법칙:** 시간이 충분하다면 같이 읽으십시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1. **문학적 해석:** 장르—서술적 형태의 이야기(narrative).<sup>6</sup>
2. **역사적 해석:**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었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엘, 오난, 그리고 셀라였습니다.
3. **신학적 해석:**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될 유다의 가문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질서를 초월하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sup>3</sup> Ibid; Matthew 1:2-3.

<sup>4</sup> 예) Matthew 12:1-8; Matthew 15:1-20.

<sup>5</sup> Philippians 2:6-8.

<sup>6</sup> “첫째 주: 하갈”의 “창세기를 해석하는 여섯 가지 법칙”을 참고하십시오.

4. **문화적 해석:** 다말이 살았던 당시 사회법은 형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합하여 자녀를 낳고 그의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당시 여인들과 아내들은 혼인을 통해서 넘겨지기도 했고,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가정에서 여인들의 역할은 아들을 낳고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그들의 대가 이어졌습니다.
5. **성경의 큰 그림:** 유다의 자손들은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다말은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됩니다.<sup>7</sup>
6. **성령의 인도하심:** 다말은 누명을 벗고, 유다는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바로잡습니다. 유다는 그의 대를 회복하고, 그의 자손들이 그의 이름을 잇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기도로 마치기

여러분의 삶에서 혼란스러운 일이나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살롬으로 이끄시는지 볼 수 있습니까?

*살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지러운 삶 속에, 우리의 깨어진 관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정의, 평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불공평한 일들을 공의롭게 하시고, 깨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sup>7</sup> Matthew 1:3